

경남대,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 혁신대학’으로 우뚝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하이테크·하이터치 교육



1 경남대 스마트 학습 공간 제2경영관 이비즈(E-Biz) 실험실 2 경남대 2021 엑스-페스타 X-Festa '레고 로봇' 3 경남대 창의융합공간 제4공학관 1층

경남대학교는 1946년 개교 이래 세계 속의 지역발전을 주도할 창의 융합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 혁신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 특성화와 경험 기반 운영에 집중하며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채로운 교육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

경남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2주기 ‘자율개선대학’에 이어 올해 3주기 평가에서도 ‘일반 재정지원대학’으로 뽑히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 재정지원) 지원을 받게 됐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전신으로 대학의 적정 규모와 교육의 질을 평가한 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3년마다 종합평가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2년 연속 받아 지역 명문 사학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경험기반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개별학습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방안으로 ‘하이테크-하이터치 학습 모델’을 도입했다.

기존 이론 중심 수업을 탈피하고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창의 경험’, ‘융합 경험’, ‘지역 경험’, ‘도전 경험’, ‘글로벌 경험’ 등의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학생 스스로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 자기 구조화학습환경(SOLE)과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진로 개발을 위해 학업 컨설팅 전담 교수와 전공별 학습컨설턴트 교수제를 운영 중이다.

또 NET-a 학사지도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최소 전공제와 복수 전공 등으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개선했다. 대학 특성화로 전문화를 겸비한 지역 연구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남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인재 양성과 더불어 차세대 연구자 육성과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영남권역을 대표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주관기관으로서 지역 내 통일 역량 강화와 사회통일 교육 거버넌스 확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교육 플랫폼 구축을 구축해 영남권역 5개 지역에 균형감 있는 통합형 통일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❶

나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대학

경남대학교 [14만 동문]이 함께합니다

140억원 3년간
3주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200억원 5년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육성사업 선정

475억원 5년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USG공유대학) 선정

약 **21억원** 6년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
경남 지역 대학연구소 중 **유일!**



미디어영상학과 박은빈



2022학년도 경남대학교 정시 및 편입생 모집

- 정시모집 : 2021.12.30.(목) ~ 2022.1.3.(월) · 홈페이지 : ipsi.kyungnam.ac.kr
- 편입생모집 : 2021.12.30.(목) ~ 2022.1.6.(목) · 입학문의 : 055-249-2000



-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획득(2021)
- 영남권역 지역 통일 교육센터 주관기관 선정(2020)
-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선정(2020)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2020)
-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 선정(2020)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선정(2020)